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제 2045호

주체 100(2011)년 12월 19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성상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 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회세의 정치원로이시고 백두의 선군령장이시며 혁명활동의 전로정을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우리 당과 혁명,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백과사전적인 사상리론적재부로 빛내이시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수령님의 불멸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었다.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를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위물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핵억제력을 보유한 무적평화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진두에

서 이끄시어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온 겨레를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나아가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한 정의의 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이민위원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고 초강도의 헌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곁쌍인 정신육체적과로 하여 렬차에서 순직하시었다.

참으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비상한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의 한생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장장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영인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중앙추도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 도 사

장군님의 령구와 조의식장을 찾아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습니다.

은 나라에 차남치는 오열의 곡성과 피눈물은 위대한 장군님과 혼연일체를 이룬 대가정의 아버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의 분출이였으며 령도자의 뜻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르려는 천만 군민의 철석같은 맹세의 대하였습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 진보적인민들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세계가 비애에 잠기고 온 겨레와 인류가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우리와 함께 하여온 지난 애도기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왔는가를 더욱 심장깊이 절감한 나날이였습니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 비범한 령도력과 숭고한 혁명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전생애는 력, 전성도발책들을 단호히 짓부시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나라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절세의 애국자의 영웅사시적행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므로써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자주적인민으로 살아갈 억년기들을 마련하시였습니다.

특출한 정치실력과 령도력으로 로동당시대의 번영기를 열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인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어로 불려일으키시어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비약, 대변혁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며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꽃피워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습니다.

한평생 야전복을 벗지 않으시고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시려 하루를 열출, 백날맞잡이로 불변

의 혁명위업계승에서 근본적으로 되는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조국의 운명과 후손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 인격과 덕망,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십니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령도파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가리키신 선군의 한길로 더욱 억세게 걸어나갈것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합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

우리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일에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피눈물의 맹세를 다진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또 한분의 장군, 최고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받들며 선군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입니다.

아버이수령님을 따라 천만 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를 걸어온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아버이장군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태양과 같은 영상은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입니다.

은 나라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영결하여 삼천리강도는 비분에 떨고 온 민족의 슬픔이 하늘땅에 차넘치고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불변불류의 정력과 로고를 다 바치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심장의 고통을 멈추시고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너무도 일찌기 우리곁을 떠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최대의 손실이며 상상도 할수 없었던 가장 절통한 민족의 대국상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광명한 미래를 펼쳐주시고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대해같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던 아버지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을 이제 더는 뭇가까이 뵈울수 없게 되었으니 사무치는 그리움과 비통한 마음을 글할수 없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헌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달리신 야전렬차에서 쌍이고쌍이 정신육체적과로로 하여 순직하시었다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한들 이보다 더 억이 막히고 절통할수 있었습니

민을해야 민을수 없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온 나라 남녀로소모두는 애도의 전기간 위대한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그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합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

우리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일에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피눈물의 맹세를 다진 우리는 김정은동지를 또 한분의 장군, 최고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받들며 선군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입니다.

아버이수령님을 따라 천만 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를 걸어온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아버이장군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태양과 같은 영상은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는 추도대회 각 도, 시, 군들에서 엄숙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영결한 온 나라의 가장 큰 상실의 아픔으로 비애에 잠겨있다. 우리 민족과 인류가 낳은 또 한분의 위인을 잃은 절통함으로 하여 산천초목도 목놓아울고있는 속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는 추도대회가 29일 각 도, 시, 군들에서 엄숙히 진행되었다. 전국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뿔어오르는 격정과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 지지도사적이 어려있는 뜻깊은 곳들을 비롯하여 추도대회가 진행되는 장소로 모여 들었다.

추도대회장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인민군부대들과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추도대회장들에 놓여있었다. 추도대회장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령

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이 추도대회들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독창적인 사상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덕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목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념원을 꽃피우시려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며 헌신의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야전렬차에서 애석하게 순직하시었으니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의 두볼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었다. 추도대회들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추도사와 인민군대, 로동계급, 농업근로자대표들의 연설이 있었다. 추도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한생과 위대한 혁명업적을 숭엄한 마음으로 돌이켜보았다.

참가자들은 백두의 기상과 정기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가슴깊이 되새기었다. 오늘의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고야말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전국각지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29일 낮 12시 전체 인민들 일제히 목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영결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애도기간의 마지막날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그 날로부터 10여일간 피눈물과 울분을 쏟고 터치여도 더해만가는 상실의 아픔과 그리움으로 29일 조국의 방선초소들과 도시, 마을들은 커다란 비애에 잠겨있었다. 정각 12시, 민중최대의 추모분위기에 휩싸인 이 나라의 하늘가에 천만군민의 가슴을 허비며 고통소리가 메아리쳤다. 평양과 각 도 소재지들에서 조포가 터져오르고 두줄기 궤도우를 달리던 기관차들, 대양을 항행하던 선박들, 거리를 달리던 자동차들이 일제히 고동을 울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향하여, 평양의 하늘을 향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가슴터지는 절통함을 안고 3분동안 목상하였다. 세월의 흐름이 정지되고 천만심장이 박동을 멈춘듯 전국의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 농촌과 어촌, 학교들, 거리와 마을, 가정들에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인민행야

전렬차의 기적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던 강산에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진 그 시각부터 형언할수 없는 슬픔에 목놓아울던 이 나라 상제들의 피라는 곡성인듯 애절히 울려퍼지는 긴 고통소리. 이 땅의 뿌리가 내린 백두산기슭에서부터 한나와 다도해에 이르는 삼천리강토와 대양과 대륙을 넘어 온 민족과 인류의 가슴을 에이는 고통소리는 하늘이 낸 불세출의 위인을 목매어 찾고 부르는 만민의 통절한 웨침이었다. 3분, 그 순간이 천년, 만년인듯 겨레와 세계의 량심은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헌신으로 한평생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앞에 영구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심장을 파고드는 고통소리에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향해 나아가라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를 들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는 마음은 진함이 없을것이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시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은 영원한 메아리로 남아있을것이다.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 황 해 남 도 추 도 대 회 장 에서 —

